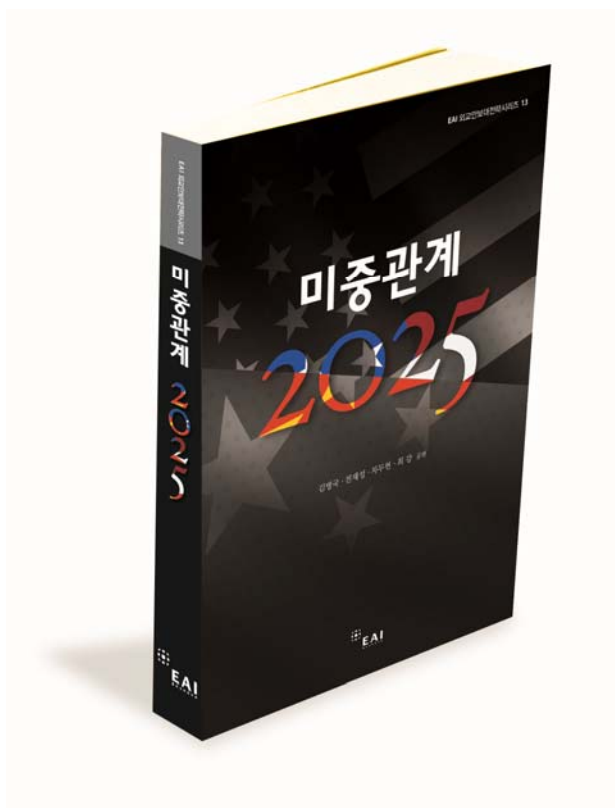


# “초강대국 미국, 부상하는 중국 2025년 G2시대를 전망한다”



- ★제목 미중관계 2025
- ★편저자 김병국 · 전재성 · 차두현 · 최 강
- ★집필진 김동훈 · 김 정 · 손 열 · 신범식  
이동선 · 이용욱 · 정주연 · 주형민
- ★발행처 동아시아연구원 (EAI)
- ★발행일 2012년 1월 3일
- ★ISBN 978-89-92395-20-5 (93340)
- ★쪽수 320쪽
- ★가격 16,000원
- ★문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02-2277-1683 (내선 112)



### “미중관계 2025 : 협력과 경쟁과 갈등의 로드맵”

미소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주시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주요 화두인 미중관계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주목한다. 중국의 부상이 예측되는 앞으로의 세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교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미래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할 것인가?

미래의 전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국제정치에서 세력재편의 추이가 어떠한 경로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자칫 선부른 억측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오늘에 비추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10년 내외의 시점을 설정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띠 것이며, 두 강대국이 그리는 세계질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전망한 것이 《미중관계 2025》이다. 이 책에는 총 12명의 국내 전문 연구진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8인의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전망한 바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 군사, 무역, 국제통화, 경제, 소프트파워, 기후변화, 에너지 등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깊은 안보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국교 수교 이후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경제대국 일본을 가까이 두고 있고, 새로운 이해로 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여전히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강대국에 둘러 싸인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을 진단하고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미중관계 2025》는 오늘의 세계를 읽고 미래의 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목차

### 서문

- 1장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 협력자 혹은 경쟁자 | 주형민
- 2장 미중 군사관계 2025 | 이동선
- 3장 미중 무역관계 2025 | 김동훈
- 4장 중국의 선택: 위안화 국제화와 기축통화의 정치경제 | 이용욱
- 5장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경제 아키텍처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 | 손 열
- 6장 2025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매력 | 김 정
- 7장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와 미중관계 | 신범식
- 8장 미중관계 2025: 에너지자원 영역 | 정주연

## 요약

### 1장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 협력자 혹은 경쟁자

미국과 중국은 상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에 국제정치의 역학구조(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등)와 비구조적 요소(이념, 가치, 현안 등)를 고려하면, 미중 관계는 ‘이중갈등자’에서 ‘이중협력자’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형성할 수 있다. 2025년에 이르면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약 70퍼센트에 이를 것이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세계정치의 역학구조는 미중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형성할 것이라 전망된다. 그리하여 양국 관계가 중립적 혹은 대립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결의 관계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것은 현재 양국의 ‘경제중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근거한다.

### 2장 미중 군사관계 2025

2025년에 미중 간에는 전반적으로 온건한 경쟁관계가 자리 잡을 것이다. 중국의 지역리더십 전략과 미국의 역외리더십 전략이 맞물리면서 중국과 미국은 아시아에서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할 것이다. 우월한 육군력을 갖춘 중국은 인접 대륙지역에서, 해공군력 면에서 우세한 미국은 해양에서 각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양국이 지역패권을 장악하려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력경쟁은 피할 수 있겠지만, 세력권이 만나는 한반도와 같은 회색지대와 양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해상교통로를 둘러싸고 경합하며 제한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국의 리더십 하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요인이 양국 간의 경쟁을 온건하게 할 것이다.

### 3장 미중 무역관계 2025

국제무역관계는 199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생산세계화의 가속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를 통해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구조조정은 어쩌면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쇠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국의 비협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덜 의존적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은 국내외 정치적 이유로 세계적 불균형 해소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현재의 미국과 같은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 4장 중국의 선택 : 위안화 국제화와 기축통화의 정치경제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락과 함께 점차 다극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인해 달러화의 기축통화 기반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2025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고 볼 때 중국의 위안화는 유로를 넘어서 대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화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며, 2025년의 국제통화질서는 달러화 체제 아래서 위안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통화로 작동하는 성격인 ‘국제와 지역 분업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 5장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 경제 아키텍처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

중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속된다면 역내 주도권 싸움에서 중국의 입지는 날로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미래의 권력으로서 자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아키텍처를 미래에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경제력 회생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 아키텍처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제질서의 기본틀이다. 결국, 2025년의 동아시아는 중국의 아키텍처와 미국의 아키텍처가 공존·경쟁하는 ‘제도적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6장 2025년 소프트파워 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매력

2025년 중국이 국가적 매력 차원에서 미국과의 간극을 크게 좁힐 수 없다면, 소프트파워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귀결점은 두 나라가 정책생산자로서 온건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추종국이 긍정적으로 소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가치에 반발하는 정책을 생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중국이 현존 소프트파워 시장을 대체할 가치 체계를 제시하면서 미국과 극단적인 가치 경쟁을 벌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지나치게 정책적 위선의 정도를 높이지 않으며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2025년 소프트파워 시장은 정책 차원에서 두 나라의 온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7장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와 미중관계

기후변화 국제정치에서 협력을 위하여 미국과 중국이 극복해야 할 국제적 및 국내적 수준에서의 구조적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 상이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UNFCCC에 대한 입장, 교토체제, 코펜하겐합의문에 대한 해석 등에서 미중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세계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향후 리더십을 고려할 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의 리더십을 선보일 것이며 ‘실천을 위한 동맹’으로 나아갈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8장 미중관계 2025 : 에너지자원 영역

2025년경 중국이 에너지자원 영역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실제로 힘의 균형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가지 결정적인 변수 때문이다. 첫째, 미국에 비해 중국은 ‘석유 취약성’(Oil Vulnerability)이 높다. 즉 석유수급 불안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취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석유 해상 수송로에서 미중 군사적 불균형이 2025년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미중 양국은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영역에서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면서 주로 산유국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각각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 예측된다.

# 집필진 약력 (가나다 순)

### 김동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6-2009년 오클랜드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비교정치경제이다. 최근 저술로는 “Democracy, Institutionalization, and Corporate Alliances,” “Barbarians at the Gates: State Control of Global Mergers and Acquisitions,” “Transnational Mergers & Acquisitions: The Impact of FDI on Human Rights, 1986-2006,” “Intra-Industry Trade and Protectionism: The Case of Buy National Policy,” “Making or Breaking a Deal: the Impact of Electoral Systems on Mergers & Acquisitions” 등이 있다.

### 김 정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본 및 한국정치,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Asian Perspective*, *Asian Survey*, 〈한국과 국제정치〉 등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 문화 연구과 폭스 인터내셔널 펠로우 등을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東京大學) 외국인연구원,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객원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일본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등이다. 최근 저술로는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Shock, Universal Values and East Asian Community,” “The Post-Crisis East Asia and the Future of Regionalism,” “Securing Trade: The Case of Korea-US FTA”(공저) 등이 있다.

##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시립인천대학교 교수와 한국슬라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는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편저), 《러시아의 선택: 탈소비에트체제 전환과 국가·시장·사회의 변화》(공저),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공저), 《스마트파워와 한국외교》(공저), “Russia’s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Politics” 등이 있다.

##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소재 동서연구소(East-West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 이론이다.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가 있으며, 주요 학술 논문으로는 “Ties That Bind?: Assess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on East Asian Alliances,”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등이 있다.

##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캔사스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동아시아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원 방문 연구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강사, 브라운대학교 왓슨 국제연구소 및 동아시아학과 프리먼 펠로우, 오클라호마대학교 중미 연구소 연구위원, 동대학 정치학과 및 국제지역학부 조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The Japanese Challenge to the American Neoliberal World Order: Identity, Meaning, and Foreign Policy*가 있다. 현재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정주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원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의 박사후(Post-Doc) 펠로우와 캐나다 알버타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술로는 “Retreat of the State? Restructuring the Chinese Bureaucracies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Reinventing the Interventionist State: the Korean Economic Bureaucracy Reform under the Economic Crisis,” “China’s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Waning Military Representation and Shifting Policy Priorities” 등이 있다.

## 주형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석사,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후과정(Post-Doc)을 마친 후 드폴대학 객원 조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로는 “Is North Korea Putting All of the Eggs in One Basket?” “Visualizing the Invisible Hands: The Shadow Economy in North Korea,” “Democratic Inconsistenc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Soviet Origin of Russian Chauvinism: Voices from Below,” “Narratives of Inequality under Communism: The Soviet Case,” “Voices of Freedom: Samizdat” 등이 있다.

# 편저자 약력(가나다 순)

## 김병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학위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1995년 한국일보 객원논설위원, 1994-199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3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랄프 스트라우스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2002-2008년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고, 2006-2009년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 및 공편저로는 《분단과 혁명의 동학: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국가 · 지역 · 국제체계: 변화와 연속성》, 《한국정치》, *Consolida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Adapt, Fragment, Transform: Corporate Restructuring and System Reform in South Korea* 등이 있다.

##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자주외교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등이 있다.

##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연구위원. 현재는 KIDA를 휴직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류협력이사로 재직 중이다. 1989년 KIDA에 입사했으며, 한미동맹, 북한정치, 국가위기관리, 글로벌 테러리즘 등 다양한 한반도 관련 쟁점들을 다루어 왔다. 국방연구원에 재직하는 동안 차두현 박사는 국방현안팀장(2005년 및 2006년), 군비통제연구실장(2007년), 북한연구실장(2009년)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위기관리정보상황팀(현재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북한 당-군관계를 다루었다. 그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자문을 해 왔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 관련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 왔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북한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등이 있다.

##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 부장이다. 1992년부터 1998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집행위원장, 현국방문제를 위한 태스크포스, 국제군비통제 연구 등 다양한 직위로 활동을 하였다.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의 저자 중 한 명이다. 군비통제,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 군사 모의연습, 한미동맹과 관련한 6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맡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책기획과 조정을 위한 선임고문으로 있었으며, 4자회담을 위한 한국 대변인 중 한 명이었다. 주요 저술로는 “An Approach toward a Common Form of Defense White Paper,” “International Arms Control and Inter-Korean Arms Control,” “Inter-Korean Arms Control and Implications for the USFK,” “Future ROK-US Security Alliance,” “A New Approach toward Inter-Korean Arms Control,” “North Korea’s Intentions and Strategies on Nuclear Games,” “A Prospect for US-North Korean Relations: beyond the BDA issue” 등이 있다. 경희대학교 영문학 학사,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http://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